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월드뷰

WORLDVIEW

05

MAY · 2017

ISSN 2234-3865



상실의시대

COVER STORY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_릭 페일스(Rik Peels)

COLUMN

기술 개발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세계관적 도전
인간가치는 기술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영화가 상상한 미래 사회의 풍경
[열린읽기]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까?



SAMSUNG

ESK
대한인간공학회
2017년 인간공학디자인상
Best of Best 수상

선물하고 싶은 세탁기가 생겼습니다

보는 순간,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빠는 건 위에서 편하게
큰 빨래는 아래 드럼으로
빠트린 빨래도 언제든지 쏙 넣고
이렇게 좋은 플렉스워시
이제, 빨래 편하게 하시겠죠?

세탁기에 바라는 모든 것을 담아
올인원 세탁. 완성

삼성 플렉스워시



WR26M9770KV1 에너지 소비효율1등급

상부 콤팩트워시로 소량세탁도 삶음세탁도 서서 편하게 | 하부 애드워시로 대용량 세탁은 안정적인 아래 위치 그대로 | 애드윈도우로 빨래도 세제도 세탁 중 언제든지 추가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에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동관19층

Telephone 02-2183-2700

Fax 02-2183-2790

www.ins-lab.co.kr

m.ins-lab.co.kr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서적 모델

고엘, 교회에 말걸다



대표 편집자 김수정 공동저자 고승희, 김지찬, 김형균, 민종기, 백신중, 이상명, 이필찬, 정진명, 조진성

미주한인복음주의신학회 KASET (Korean American Society of Evangelical Theology)

B5변형/292면/14,000원

중요하지만 간과해 온 ‘고엘’에 관한 국내 최초의 공동 연구물!

한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가 ‘고엘’을 주제로 모세오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전공 분야에서 연구한바, ‘고엘’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속’과 긴밀히 연결된 개념임을 밝혀냈다. 이 책은 ‘되찾아 주는 친족’, ‘속량자’, ‘구속자’를 의미하는 ‘고엘’(히브리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보여 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 가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전을 제시해 나간다.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서사.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

기쁨병원 자체 개발한 ‘최소절개 무인공막 탈장수술법’으로 20분만에 집도



103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개원 이래부터 현재(2017. 02. 28)까지 탈장수술 **11,654**건 달성

기쁨병원은 국내최초로 탈장센터를 개설한 강윤식 원장이 통증과 재발을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국소마취 무인공막 탈장수술을 개발하여 국내 지방이나 해외 22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탈장전문 외과병원입니다.



정확 완벽 따뜻
기쁨병원

www.gipumhospital.com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2
(뱅뱅사거리 위치)

02)570-1234

<Summit Ministries>의 세계관 훈련 커리큘럼 한국어판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시대의 이해

충돌하는 세계관

이 책은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들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은 기독교인과 기독교 청년들이 비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이념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그것들을 초래한 비성경적, 비현실적, 더 나아가 실재에 관한 비논리적인 가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주 제 신학 / 철학 / 윤리학 / 생물학 / 심리학 / 사회학 / 법학 / 정치학 / 경제학 / 역사학

대표적 세계관 기독교 / 이슬람교 / 세속적 인본주의 / 뉴에이지 / 마르크스-레닌주의 / 포스트모던주의



데이빗 A. 노벨 지음 | 류현진, 류현모 옮김
187x260mm | 608쪽 | 정가 35,000원

William Shakespeare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셰익스피어



피터 J. 라잇하르트 지음
150x218mm | 352쪽 | 정가 15,000원

기독교인을 위한 셰익스피어 희곡 안내서

헨리 5세 | 줄리어스 시저 | 햄릿 | 맥베스 | 말괄량이 길들이기 | 헛소동

이 책은 셰익스피어 작품을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작품을 다루기에 앞서 문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문학 작품을 심미적이나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관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읽기를 말하고 있다. 삶의 위대한 관찰자로 평가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학습을 통해 다른 문화 산물을 읽는 세계관을 훈련하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시간을 따라 흐르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섭리의 역사를 긴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여주신다. 구속의 계획도 철학적 명제나 수학 공식이 아닌 실제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 알려 주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 책이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 신국원 교수(충신대학교 신학과) 추천



Edu Letter from SICA #3 경청

세상은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말하면 똑똑하다 여깁니다.
SICA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더 자케롭다 가르칩니다.
문제를 끝까지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정답에 이르는 빠른 길입니다.
아파하는 벼의 말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만큼
멋진 위로도 없습니다.

관계를 출발하게 하는 것이 말걸기일지 몰라도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잘듣기에 달려있습니다.
경청은 존중에서 비롯되어 신뢰로 열매 맺습니다.
경청이 안되면 배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필요만 끝없이 늘어놓는 기도보다,
그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바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요, 그의 삶이었습니다.

듣는 이는 없고 오치는 자들만 가득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하나님의 잔잔한 신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두 가지가 새삼
떠올립니다. ears to hear, eyes to see.

SICA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게 말 잘하는 어른로 자라는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SICA는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볼수있는 눈을 갖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SICA는 모든 과목을 성경의 기초 위에 가르칩니다.
- SICA는 기독교 고전교육(Trivium)으로 가르칩니다.
- SICA는 이중언어(영어+국어)로 교육하며, 고전어(라틴어)를 가르칩니다.

유·초·중등·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5월 17일(수) 오후 4시,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여주캠퍼스 고등 입학설명회 2017년 6월 10일(토) 오전 10시, 장소: 경기 여주시 하거동 711-16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

그곳에 있었다면
그분의 부활을
믿었을까.....



십자가에서 내리심 / 렘브란트 作 1634년

말씀이 드라마가 되어 Audio 생생한 감동으로 이끄는 드라마바이블 탄생!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 참여 / 4년 여간의 제작 기간 / 드라마바이블만을 위한 OST녹음



앱스토어에서 드라마바이블로 검색후 무료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작위원 구약 김윤희 FWA 대표, 진 햇볼트리니티 구약학 교수 신약 이상일 총신대학교 신약학교수 문화 임성빈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음악 배일환 이화여대음대교수
 자문위원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박은조 은혜샘물교회 담임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류영모 한소망교회 담임목사, CBS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철환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문훈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김은호 오문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방선기 이랜드사목,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 박성민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두상달 CBMC 이사장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최갑중 백석대학교 총장,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 김여호수아 드림교회 담임목사, 조정민 베이직교회 담임목사, 함태경 CGN TV 경영본부장 등



Audio
DRAMA
BIBLE
드라마 바이블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를 공모합니다!”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논문제안서 응모

기독교학문연구회는 전문학술지인 『신앙과 학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서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연구소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공동으로 기독교세계관 연구의 활성화와 신진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2017년도 발간 예정인 『신앙과 학문』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기독교세계관을 적용한 학술적인 논문**

■ 공모 요강

- 제출기한: 2017. **5.30** (화) 까지 논문제안서 제출
- 제출자료: 1) 연구논문 제안서 (7매 내외, 참고문헌 별도) 2) 이력서 (자유형식이나 단, 이메일, 손전화 필수 기재)
- * 제출 시 메일 제목을 “[이름] 논문제안서 공모” 로 기재
- 제출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선정편수: 5편 내외 (비전임 신진학자, 대학원생 우대함)
- 발표일자: 2017. **6.20** (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개별연락, 월드뷰 공시)
- * 추후 학술대회의 주제강연 이후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선정 시와 논문 게재 시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 (제안서 채택 시 50만원, 『신앙과 학문』 논문 게재 시 50만원 지급)
-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 여부 결정
- 선정된 논문의 『신앙과 학문』에 심사료와 게재료를 면제 (단, 23권 1호(18년 3월호)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의 제안서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본회 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 문의: 세계관연구소 담당 (Tel: 02-3272-4967)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
 세계관연구소 소장 **조성표**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회 위원장 **손병덕**

Contents

MAY · 2017



COVER STORY

커버스토리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 릭 페일스 13

COLUMN

묻고 답하기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 김현수 53

SPECIAL

발행인의 글
전체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 김승욱 10
대표주간
기술 개발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 | 손봉호 22
기획칼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세계관적 도전 | 성기진 25
인간가치는 기술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 | 이정일 31
영화가 상상한 미래 사회의 풍경 | 박명호 36
열린읽기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까? | 이춘성 43

CULTURE

손봉호의 유머 모음
맞춰보세요 | 손봉호 50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어쩌면 행복이 먼저가 아닐지 모른다 58



릭 페일스 (Rik Peels)

WORLD VIEW

2017년 5월호 | WORLDVIEW | 통권 203호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동역회>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월드뷰> 후원 국민은행 387201-01-121691 예금주: 세상바로보기

WORLD VIEW



CONTENTS

그땐 그랬지	
후원의 밤	20
루터의 도시를 가다 #15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3 추태화	48

BOOK REVIEW

새책읽기	
믿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홍훈표	60

NEWS

재정보고, 후원명단	63
사무국 소식	64
5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64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대한민국

김승욱 (월간<월드뷰> 발행인)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선거,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 위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민 간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답변을 지면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세계관에 따라 삶의 전 영역을 다루는 월간<월드뷰>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을 가능한 한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며 자칫하면 불필요한 갈등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월간지에는 진보나 보수, 좌파나 우파적 시각이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글을 쓰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자 기독교세계관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개인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면 각자의 소신대로 세상 안에서 성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을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사회 참여일 뿐,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본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에 대한 어떠한 글도 실지 않았던 것과 반대 입장을 가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글을 실자는 권유를 수용했음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선택의 자유가 제한받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저 역시 검인정 교과서를 학부모나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국정체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인정체제 아래에서도 역사교과서 선택은 특정 교사나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부모에게 교과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교학사에서서는 역사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과서가 보수적 성향을 띄며 친일과 독재자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집단 반대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 5,560여 개 중등학교 중 단 3학교뿐이었습니다. 교학사는 가장 많은 교과서 종류를 발행하는 출판사인데 이 사건으로 이윤이 548억(2012년)원에서 312억(2014년)으로 급감했고, 시장점유율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들어 검인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검인정 체제가 수락된 직후인 2004년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서술이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로 역대 정부의 공과 실에 대한 편파적 서술과 북한과 관련된 역사 서술이 편향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건국이라고 명시하고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으로 묘사하는 등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

육부는 2008년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38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으나 집필진의 불복 소송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등 주요 용어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실은 교과서 등에 교과부가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집필진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반복했습니다.

요약하면 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에서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10여 년 내내 논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관점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대해 조직적으로 항의하거나 협박하는 등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외압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다시 국정체제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검인정 체제 아래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는 전체주의적 외압이 존재했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 역시도 국정화라는 전체주의적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며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제가 국정화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이유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바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은 국정화 역사교과서는 친정부적인 역사해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집필과정을 지켜본 저는 정부가 노력하면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좋은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수 1-2명과 교사 7-8명이 집필을 하는 반면에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31명이 참여했으며, 집필진 중에 학습탐구 등을 맡은 7명의 현직 교사를 제외한 24명은 교수이거나 역사관련 연구소의 연구위원들로 각 전공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집필하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 논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했습니다.

집필진들은 양심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면에서는 큰 비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전체주의적 방법이라는 논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검인정 체제 12년 동안 있었던 각종 외압을 볼 때, 정부만 전체주의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를 검인정처럼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처음에는 이를 선택하려는 학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사들의 선택과정에서 5,564개 학교에서 단 한 학교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만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편에 다가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에 동참했습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을 평생 하면서 늘 받았던 비판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원론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뿐 현실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의 방법으로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했으며,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월간〈월드뷰〉 또한 어느 한쪽의 시각만을 고집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필진에 참여한 것 역시 개인의 사회참여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글 | 김승욱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용 노동부장예인고용축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김정호 김태황 박상은 송인규 신국원 우중학 이승구 조성돈 조영길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인양생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실무진	나동훈 곽우정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월드뷰 편집기자, 장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중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나동훈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익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생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만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문소영(명지대 교수), 문준호(재)스마트IT융합시스템연구단 연구부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성철 (명지대 교수), 이재희 (가천대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현대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인터뷰어 성영은 교수

릭 페일스(Rik Peels) 교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면서 같은 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소에서 '신앙과 과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2012년 우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를 방문하여 기독교 철학자 플란팅가(Alvin Plantinga)와 연구하기도 했다. 그의 글들과 책은 www.rikpeels.nl에서 볼 수 있다. 본 인터뷰는 4월 4일 (화) 안양 독립개신교회신학교에서 있었던 '규모 논증(The argument from scale)'에 관한 강의와 질문,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대화들을 강의 통역을 한 성영은 교수(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가 정리한 것이다.

성영은 (이하 성) 한국은 처음인가? 이번 방문에서 어떤 강의들을 했고 할 계획인가?

릭 페일스 (이하 릭) 이번이 첫 방문이다. 제 부친(H.G.L. Peels,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은 한국을 몇 차례 방문 했는데, 특히 오늘 이 신학교에서의 강의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곳에서 한 첫 사례라 하니 감회가 새롭다. 어제 부산 고신대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오늘은 '규모 논증'에 대해서, 내일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는 '책임 있는 믿음(Responsible belief)'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성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오늘 강의 주제를 정할 때 과학을 하는 내가 비교적 쉽게 통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규모 논증'을 주제로 정했다. 그런데 막상 보내준 글을 읽어 보니 논증도 논증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무신론에 관한 글인 데다 인용한 저자들이나 책들 역시 한국에 별로 소개된 것들이 없어 어떻게 통역하고 소개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릭 한국에는 이런 주제가 아직 생소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교회를 다니는 인구는 3%에 불과하다. 대신 무신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서유럽의 현상이 그지역에

만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번 한국을 방문해 보니 한국은 아직 종교적 영향이 크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종교적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서구를 휩쓸고 있는 무신론의 물결이 한국에도 곧 밀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성 오늘 강의 주제로 가보자. 강의를 듣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규모 논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릭 규모 논증은 현대과학이 말하는 우주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주장이다. 현대과학은 시간적으로 우주는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인류는 겨우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 주장한다. 이렇게 긴 우주 역사의 0.00145%밖에 차지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인간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잡을

경우 인간은 밤 11시 59분 48초 정도가 돼서야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주 역사의 대부분을 인간과 무관하게 또 인간을 그렇게 보잘것 없는 존재로 창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있다면 공간적으로 우리 은하에 1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가 최고 2천억 개나 있음에도 인간을 겨우 모퉁이에 있는 하나의 별의 그것도 그 중 하나의 행성에 있도록 창조할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 우주의 시공간 대부분은 인간이 살기에 극히 부적합한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우주를 만들었겠느냐는 것이다.

성 규모 논증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릭 회의론학회를 창립하고 도킨스(Richard Dawkins) 등과 무신론 운동을 펼치고 있는 셔머(Michael



Shermer)는 “신은 왜 반지름이 137억년이나 되는, 그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들었을까? 엄청난 낭비에 불과하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규모 논증을 주장한다. 유명한 우주론자 이면서 역시 무신론자인 손 캐롤(Sean Carroll)은 이 우주의 텅 빈 공간들이나 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철저히 생명의 존재와 무관하다면서 이 주장을 한다. 또 다른 무신론자인 영국의 철학자 에브리트(Nicholas Everitt)도 이 큰 우주, 이 오래된 우주는 유신론 가설과는 놀라울 정도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제 박사 지도교수인 네덜란드 우트레흐트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필립스(Herman Philipse)는 한 발 더 나아가 엔트로피가 최대로 되어 열역학적인 죽음에 이르고 또 무한히 팽창하여 모든 우주가 얼어붙을 미래의 우주를 봐도 이 역시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 주장한다.

성 이런 규모 논증에 대응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왜 중요한가?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릭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소위 ‘악의 논증’이나 우주의 질서나 조화로 부터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목적론적 논증’과 유사한 이유에서다. 이 규모 논증으로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유신론을 공격하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점에서 이 논증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규모 논증에서 말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히 크고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부적합해 보이는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이 우주는 젊은 이들이나 일반인들조차 무신론을 쉽게 받아들이게 할 정도로 호소력이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맥주나 커피를 한 잔 하면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에서도 나올 만큼 우리 일상의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에 대해 기독교 철학자나 과학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성 당신이 보기에 이 규모 논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릭 이 규모 논증의 전제들이 문제다. 자세한 전제들은 강의 자료에 나오지만 규모 논증의 전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과 같은 지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주의 많은 부분이 인간에게 부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의 시공간의 많은 부분이 인간에게 부적합할 것이다. 셋째, 우주의 시간적 공간적 많은 부분이 인간에게 부적합하다. 규모 논증은 이런 전제들로부터 우주는 하나님이 있다는 가설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가설을 더 지지한다고 결론 내린다. 내 비판은 먼저 이 전제들에 나오는 인간에게 부적합하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측면으로 너무 제한하여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우주의 세밀한 조정 작용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미세조정(Fine-tuning) 논증’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 중 하나이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우주 속에 살도록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과학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우리로 우주에 살기에 점점 더 적합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적합성 여부를 쉽게 말할 수 없게 한다. 무엇보다 첫 번째 전제가 문제인데 먼저 이 전제의 배경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생각이 옳은가 하는 점을 봐야한다. 즉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인간이 존재해야만 또 공간적으로 상당한 공간을 인간이 차지해야만 인간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옳은가이다. 많을수록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요리나 좋은 음악은 적당히 있을 때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아이가 소중하다 해서 부모들이 무조건 많은 자녀를 낳지는 않는다. 인간의 한계 때문만은 아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큰 우주에 인간을 가득 채우지 않으셨다 해서 인간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 전제에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것도 문제다. 가치

있고 소중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이 많다. 지성, 이성, 자유,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우주는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 오히려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볼 수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 이 우주에 가득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런 점에서 옳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이 우주의 유일한 지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찾기가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유일한 존재이기에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주의 규모와 가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물리적인 시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기여 하는 정도로 즉, 우주 전체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성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창조한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릭 성경은 인간의 창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데에는 인간 창조 외에 다른 목적들이 있다. 우주의 규모가 인간의 규모에 비해 너무 커서 쓸모없다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다는 점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미적인 목적이다. 우주의 거대한 규모는 하나님의 미적 속성을 잘 드러낸다. 또한 우주의 별이나 암흑물질 자체, 우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발전, 혼돈과 질서 사이의 균형도 하나님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다. 우주가 꼭 인간 존재에 적합해야 그리고 인간과 같은 생명으로 가득차야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

성 하나님이 우주를 작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잘 믿을 텐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했을까? 이 점에 대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믿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릭 미국의 요나단 셸렌버거(Jonathan Schellenberg)는 『하나님의 감추심(Divine Hiddenness)』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논증이 맞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잘 배운 내용이다. 내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 이 규모 논증에 대해 또 다른 방식의 비판은 없는가?

릭 규모 논증에 대해 신은 존재하지만 신의 목적이나 행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론적 유신론의 주장을 일부 빌려와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철학자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보지 못하기에 추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를 인식적 원리 접근(epistemic principles approach)이라 하는데 미국 칼빈대학 철학과 와익스트라(Stephen Wykstra)가 주장한다. 이를 규모 논증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적합한 우주를 창조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독교 철학자인 올스턴(William Alston)이 주장한 인지적 한계 접근(cognitive limitations approach)으로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

단할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규모 논증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 우주의 거대한 규모나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해 보이는 거대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성 이런 규모 논증에 대한 당신의 반론은 새로운 것인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았는가?

릭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3-5절)”라고 그 답을 말하고 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겠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33-36절)”에서도 같은 답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런 성경의 답은 철학 잡지에 실릴 논문에는 넣을 수 없다. 바로 출판이 거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웃음)

성 작년 『이기적 유전자』 등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사가 여러 신문에 크게 실렸고, 인터넷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강조하는 무신론이나 반기독교는 그의 책들이 전부 번역되고 있는 한국에서 특히 그 책들을 읽는 젊은이들을 통





해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릭 다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도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도킨스 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한 손캐롤, 에브리트, 셔머, 그리고 필립스 등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책, 글, 그리고 강연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성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이런 비판으로 무신론 주장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는데 왜 이런 비판 작업을 하는가?

릭 여기 무대가 있다 해보자. 신자가 성경을 들고서 있다 치자. 그리고 같은 무대에 리처드 도킨스나 손캐롤과 같은 무신론자도 서 있다. 무대 위의 신자가 이 무신론자를 향해 무신론은 틀렸다 말한다. 그러나 무신

론자는 이 신자의 말에 관심을 두거나 이 신자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 무신론자는 청중석에 앉아 있는 천 명, 아니 만 명의 청중들을 향해 무신론을 말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비판하는 신자에게가 아니라 청중에게 관심을 두고 청중을 향하여 열변을 토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대 위의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무신론자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을 중단해야 하는가? 그러면 무신론자의 말만 듣게 되는 청중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성 성경은 창조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한 아주 강조한다. 그런데 무신론은 규모 논증에서 보듯이 기독교의 창조만을 문제 삼아 성경이 틀렸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의 일부인 창조만 공격하는 무신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제기한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릭 물론 그렇다. 신자는 창조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원한 나라의 입장에서 전체를 봐야 한다. 무신론자들이 제기하는 그 이상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고 세상 학문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본 토대에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

성 당신이 말한 대로 박사 지도교수인 필립스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인으로서 그 밑에서 공부한다는 게 어렵지 않았나? 신자는 무신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특히 많은 신앙인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릭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 언젠가 필립스의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세미나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 『과학 시대의 하나님? 종교적 이성 비판(God in the Age of Science? A Critique of Religious Reason)』의 일부를 발표하였다. 세미나 후 내가 그의 발표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비판을 하자 그가 나에게 연구원으로 올 것을 제안했다. 나는 왜 연구원이냐면서 당신 밑에서 박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그의 지도하에 박사를 하였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아주 신사였고 친절했고 성실했다. 2주에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해주었고 그렇게 4년을 지도해주었다. 지금도 신앙적 입장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친구로 지내고 있다. 나는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이력을 보니까 철학도 하고 신학도 했더라. 또 잘 아는 대로 부친은 구약학자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을 잘 배웠다고 들었다. 왜 목사나 신학자가 되지 않고 철학자가 되었는가?

릭 나는 신학(구약신학에서 시작하여 특히 조직신학)에 관심이 많았다. 조직신학을 잘 읽을 수 있었고 여러 신학자들을 잘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비유로 말하면 조직신학

은 아주 좋은 요리였는데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신학은 좋은 도구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나에게 맞는 더 좋은 도구가 필요했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철학이었다. 논리학이나 해석학 등이 좋은 도구였다. 아펠도론 신학대학교에 다녔지만 암스테르담에서 인공지능, 진화론, 무신론 등에 대해 들으면서 이런 분야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앙인으로서 철학으로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독교 철학이 좋은 소명이라 여겨 선택한 것이다.

성 오늘 대화 감사하다. 다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릭 아직은 없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다. 나도 감사하다.



글 | 성영은

성영은 교수는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케플러 신앙의 빛으로 우주의 신비를 보다』(성약, 2011), 『창세기 1장으로 본 과학』(공저, 성약, 2015)이 있다.



2001년 <기학연 후원의 밤>

후원의 밤

2001년 <기학연 후원의 밤> 행사 후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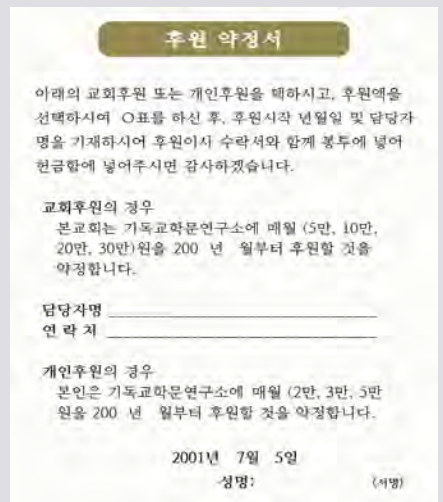
그땐 ‘후원의 밤’을 자주 열었습니다.

기독교학문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손봉호 장로님이,
연구소 소장으로는 김의원 목사님(당시 총신대 총장)이,
실행위원장으로는 김승욱 교수님(본지 발행인)이 일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후원교회로 모시기 위해 의욕적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기대하며 다양한 준비를 했는데,
기대와 달리 참석인원수가 많지 않아 실망이 컸습니다.
행사 당일의 참석자는 사진에 나온 분들의 2배 정도 되었는데
행사를 마친 후에 촬영을 해서 사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후원 약정서도 받았습시다.



WORLDVIEW

SPECIAL

기술 개발 모라토리엄이 필요하다

손봉호 (대표주간)



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죽을 사람이 살고 삶이 편리해졌으며 심지어 부패방지과 인권신장도 도움을 받았다. 비인간적인 육체노동이 많이 사라져서 노예가 필요 없었으며 많은 아동들이 중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여성들이 종일 부역일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다. 현대과학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technology)은 오늘의 세계를 이룩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것들 가운데 하나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능력(homo faber) 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그렇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소소한 부작용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람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앗아가며 심지어는 인류를 꺾을 수도 있게 되었다.

우선 현대 기술은 사람의 노동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마르크스(Karl Marx)가 “노동이 곧 인간”이라 했듯 사람은 노동을 통하여 사람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까지는 기술이 노동의 힘든 부분을 경감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하는데 돕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노동 자체를 대체하여 사람의 노동이 필요 없게 하고 있다. 실업자가 양산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자리 210만 개가 새로 생겨나는 반면 기존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아시아에서만 실업자가 1억 명이 넘을 것이라 예측도 있다. 노동에서 해방되어 여가를 즐기고 예술 등 창조적인 활동과 스포츠 등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 되겠는가? 돈이 우상이 되어 버린 물질주의 문화에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절대 다

수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열등감, 무력감, 자괴감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기술을 가진 소수가 나머지 절대 다수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얻어먹는 사람들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느낄 수 있고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존중할 수 있겠는가?

실업 못지않게 사람을 기죽게 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로봇이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모든 기계는 사람의 몸이 하는 활동을 좀 더 강하고 빠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자동차는 다리보다 빠리, 멀리 달리고, 기중기는 팔보다 더 무거운 것을 더 높이 들어올리며, 텔레비전은 눈보다 멀리 보도록 도왔다. 그래서 사람의 진화는 이제 생물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기계로 이뤄진다는 흥미로운 이론도 제시되었다. 즉 자동차는 다리가 진화한 것이고 망원경은 눈이 진화한 것이라 주장이다. 그 이론에 따르면 컴퓨터는 두뇌가 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뇌의 “진화”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망원경, 텔레비전, 컴퓨터는 모두 사람의 두뇌를 통하여 창안되고 제조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 두뇌조차도 인공지능이란 것으로 대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기계가 센서를 통해서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학습하게(machine learning) 된 것이다. 사람처럼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게으름도 피우지 않는 기계는 쉬지 않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IBM의 슈퍼컴퓨터 Watson은 질병 진단과 처방에서 의사보다 더 신뢰를 받기 시작했고,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는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chatbot)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보험금 지불을 결정하

두뇌의 “진화”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동차, 망원경, 텔레비전, 컴퓨터는
모두 사람의 두뇌를 통하여 창안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 두뇌조차도
인공지능이란 것으로
대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고 시행한다. 조만간 질병의 진단과 처방, 법률 해석, 전략 수립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우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계속 존중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이 손에 들린 폭탄처럼 언제 터져서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지 모른다고 옥스퍼드대 보스트롬(Nick Bostrom)교수가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부정적인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은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돈과 기술이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기술이 경제적 이익과 무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기술개발이 경제적 이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돈이 별로 들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벌써 바닥이 났다. 이제는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첨단 기술은
부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빈자에게는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있게 되었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한 층 더 심각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빈부격차는 기술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술 이용에도 마찬가지로다.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사용도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후진국 국민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첨단 의료기술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부자나 빈자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암에 걸려도 부자는 살고 가난한 사람은 죽어야 하며, 선진국 국민은 살고 후진국 국민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부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빈자에게는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절망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부의 분배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기술개발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 삶이 얼마나 편리해야 “이만 하면 충분하다” 할 것인가? 통신은 얼마나 더 빨라야 하며, 영상은 얼마나 더 선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은 무엇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람은 일해야 하며 종교개혁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일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노동 대부분을 기계가 수행하고 생각조차 기계가 더 잘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류는 이제 자유방임적 기술개발에 책임을 질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어떤 분야는 윤리적인 이유로 연구개발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확대될 때가 되었다. 인류에게 이익보다는 해악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는 기술은 연구개발을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술개발의 모라토리엄이 필요하게 되었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세계관적 도전

성기진 (철학박사, 프로그래머)



공유경제의 배후에는 오픈소스가 있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사와 손님을 연결해 주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빈 방을 호텔처럼 빌려줄 수 있도록 집 주인과 손님을 연결해 주는 에어비앤비(Airbnb), 직접 만든 액세서리나 미술

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엡시(Etsy) 등의 서비스들이 법적 모호성과 상당한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적극적인 가격 흥정에 나서거나 패트리언(Patreon), 킥스타터(Kickstarter) 등을 통해 직접 후원 또는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SNS도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을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소비만 할 것을 요구받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통념을 깨고 모두가 '프로슈머(prosumer)'¹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²

최근의 IT 스타트업들은 지난 3-40년간 세상을 쥐락펴락해 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과 사뭇 다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부품, 데이터베이스 등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주력했던 지난 세대의 IT 기업들과 달리, 오늘날에 스타트업들은 많은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나 재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 주고 그 과정에서 광고료나 수수료를 받는 사업 형태를 띤다.

이런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낯선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넓어진 덕분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설립과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IT 스타트업의 특성으로 볼 때, 오늘날의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를 접하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 역시 이들이 개발하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의 세대와 달리 2010년대의 프로그래머들은 컴퓨터를 처음 접할 때부터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open-source) 소프트웨어를 써왔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곧 개발자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웠으니, 사업을 구상할 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지식을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모든 컴퓨터는 하드웨어(물리적 장비)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조합으로 작동한다. 스마트폰의 예를 들자면 반도체와 액정화면, 배터리 등 공장에서 찍어낸 것들은 하드웨어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카카오톡, 밴드, 문자, 카메라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게 내리는 명령의 모음이다. 화면에 어떤 글자를 표시하러거나, 사진을 찍어서 누구에게 보내라는 등…….

흔히 알려진 대로 컴퓨터는 0과 1밖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도 사람의

```
#include <stdlib.h>
#include <stdio.h>

int main()
{
    printf("Hello World\n");
    return 0;
}
```

언어가 아닌 0과 1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계어만으로 작업하는 것은 웬만한 프로그래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C언어, 자바 등 그나마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명령을 작성하고, 나중에 이것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다.³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소스 코드(source code)'라고 부른다. 소스 코드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도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윈도우, 엑셀, 포토샵 등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계어로 변환된 결과물(바이너리)만을 판매하

1.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말
 2. 현대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도 공유경제는 물론 있었다. 지금도 전통시장에 가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직접 키운 먹거리나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파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훨씬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얼굴을 보고 거래하는 전통시장과 크게 다르다. 우버와 같은 플랫폼을 개발한 소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벤처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따뜻한 나눔과는 거리가 있다.

3.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환한다.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거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등이 있다.

고, 소스 코드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소스 코드가 있으면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복사 방지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오픈소스(open-source)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고쳐쓸 수도 있으며, 고쳐서 배포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저작권자의 허가서(라이선스)가 동봉되어 있다.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삼성, LG, 샤오미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입맛에 맞게 고쳐쓰는 것은 안드로이드에 포함된 대부분의 기능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픈소스 운동을 시작한 리처드 스톨먼 (출처: 위키백과)

IT 기업과 프로그래머들은 왜 이렇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비싸게 팔지 않고 소스 코드까지 마구 퍼주는 것일까? 아래에서 소개하듯 개방과 공유라는 정신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대부분은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여러 기업과 프로그래머들이 쉽게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이 부담해야 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삼성, LG, 샤오미 등 여러 회사들의 스마트폰 개발 비용을 낮춰 주는 것은 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수록 플레이 스토어의 판매량도 늘어나니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오픈소스 개발에 참여하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니 취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저작권자가 직접 고쳐 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도 수용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입맛대로 고쳐쓸 수 있으니, 고객의 필요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해 주고 돈을 받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오픈소스 운동의 과거와 현재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연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스 코드를 공유해야 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1983년에 발표한 GNU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당시 연구소에서 새로 구입한 프린터에는 종이 가 걸리거나 인쇄가 끝났을 때 알려주는 기능이 없었는데, 이 기능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제조사가 묵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스톨먼이 설립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은 컴퓨터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비판하고 오픈소스 대안을 발굴하는 활동을 지금도 왕성하게 계속하고 있다.⁴ 실용적인 이유로 오픈소스를 택하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프로그래머들과 달리, 스톨먼이 시작한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도덕적인 메시지가 강하다.

스톨먼에 따르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자유 2) 필요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고쳐쓸 자유 3) 이웃과 나눠 쓸 자유 4) 내가 고친 버전도 마찬가지로 나눠 쓸 자유.

4. '공유경제'라는 말을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한 하버드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이사로 재직할 적이 있다.

처음 두 가지는 개방을 강조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공유를 강조한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마크 앤드리슨(Marc Andreessen)의 말처럼 어느 때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톨먼은 소프트웨어가 소수의 기업자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개방과 공유의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상용 소프트웨어로 큰 돈을 번 기업들은 스톨먼을 비롯한 오픈소스 진영을 철천지원수로 취급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공격한 것은 물론,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공산주의자이며 IT 업계의 성장을 방해하는 바이러스와 같다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용자가 곧 개발자라는 특성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많은 프로그래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1992년에는 핀란드의 대학생 리누스 토르발스(Linus Torvalds)가 개발한 리눅스(Linux) 커널을 GNU 프로젝트와 조합하여 스톨먼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의 운영체제가 탄생했다. 현재 세계 500대 슈퍼컴퓨터 중 99.4%와 과반수의 인터넷 사이트가 리눅스로 운영되며, 앞서 언급한 안드로이드도 리눅스의 일종이다.

이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백악관과 뉴욕타임즈 등 전세계 인터넷 사이트의 28%가 오픈소스인 워드프레스(WordPress)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오픈소스인 제이쿼리(jQuery)를 쓴다. 국내 대부분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역시 오픈소스이다. 개인 사용자용 PC와 애플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픈소스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것이다.

오픈소스 운동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

서의 영향력도 키워 가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일반 창작물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도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틀을 제공하여 리믹스 문화(remix culture)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위키백과(Wikipedia)는 많은 사용자들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픈소스 정신을 배반한 스타트업들

지난 10여 년 사이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이라면 오픈소스의 영향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최근 히트를 친 IT 스타트업 중 핵심적인 서비스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젊은 프로그래머들은 개방과 공유라는 오픈소스의 가치를 SNS에 접목했다.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모든 사람의 삶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을 꿈꾸었고, 오픈소스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참여와 공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자연스레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비영리단체나 중소기업, 동호회 등의 주도로 개발되어 온 이제까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달리, 공유경제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매기니 돈이 마구 굴러들어오기 시작했다. 고객의 선택권을 짓밟는 대기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일반 사용자에게 힘을 보태 주자는 생각으로 시작된 오픈소스 운동의 덕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프로그래머들도 막상 자기가 재벌 부럽지 않은 부를 쌓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게 되자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의 오

늘이 있게 해 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신을 배반한 것이다.

넓은 규제에 저항한다는 개념으로 초창기에 좋은 이미지를 쌓았던 우버(Uber)는 허위 예약과 공격적인 스카우트 제안으로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기사들을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 임금이나 법정 휴가 일수 등의 법률 적용을 피하는가 하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시키는 등 지난 2~3년간 끊임없는 논란에 시달려 왔다.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도 집 주인들의 탈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남는 방을 홈스테이로 활용한다는 원래 의도와 달리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사업가들이 편법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편법 호텔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수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일까?

대중교통이나 숙박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조차 없이 참여자 모두를 위협에 노출시키고, '긱 경제(gig economy)'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일노동자를 양산한다는 악점은 우버나 에어비앤비뿐 아니라 음식이나 옷이나 일자리를 공유하는 대부분의 신생 서비스들이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를 믿고 창업에 도전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결국 빚만 떠안게 된 것처럼, 이런 서비스들도 중개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얼마든지 참여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왜곡된 공유를 퍼뜨릴 수 있다.

스톡먼은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가 지켜 주어야 하는 사용자의 권익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에게 있어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컴퓨터를 조종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작동 원리

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프로그래머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나의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컴퓨터를 조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⁵ 내 돈으로 산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내 의사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실리콘 벨리의 스타트업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아쉬운 점도 바로 이것이다. 내 개인정보를 멋대로 가져가서 자신들의 마케팅에 사용하는 업체 같은 기업,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헛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슬쩍 올리는 어플리케이션, 처음부터 불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이 과연 개방과 공유의 정신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개방과 공유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따뜻한 느낌은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은 주위 사람들의 사생활을 낚날이 들여다보는 것이 개방이라고,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한 후 별 생각 없이 클릭하는 거래가 공유라고 착각하도록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벤처투자자들과 미국 정보기관만 좋은 일 해주는 셈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스타트업 붐이 일면서 일확천금의 꿈에 사로잡힌 프로그래머들은 스톡먼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도덕적인 메시지를 답답한 영감님의 고집이나 극단적인 주장으로만 여기곤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덕분에 어마어마한 양의 고급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전의 이면에 어떤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5. 모든 사람이 소스 코드를 읽을 수는 없지만, 공개된 소스 사이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다면 누군가는 찾아내어 그것을 만든 회사에 따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PC 제조사가 사용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기본으로 탑재하여 팔다가 발각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다.

적이 없고, 돈을 버는 데 방해가 된다면 생각하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개방성은 SNS가 부추기는 무차별적인 사생활 노출과 다르다.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IT 기업과 프로그래머 등 기술을 선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고의로 주는 기능을 넣지 말고,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공유는 자투리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일자리를 주선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격으로 각자 힘이 닿는 만큼 공동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좋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번역, 매뉴얼 작성, 디자인, 홍보, 게시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초보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월급을 받는 직원과 취미로 참여하는 외부인이 차별 없이 함께 일하기도 한다. 반면, 공평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공유를 표방하는 서비스라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인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오픈소스 운동을 이끌어 온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이며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적대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앞 사람이 제시한 것 이상의 사용 조건을 요구하지 말라는 GPL 라이선스⁶⁾나 받은 만큼 나누어 주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즈의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조항에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는 말씀의 가장 훌륭한 실천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의 지도자들도 설교나 강의노트를 꼭꼭 숨겨두지 말고 홈페이지, 블로그, 공개강좌 등을 통해 더 널리 공유하고 이웃들의 건전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독점적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독점적 지식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은 비싼 책의 저자보다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리누스 토르발스나 대니얼 번스타인(Daniel Bernstein)과 같은 프로그래머들이 존경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교회 어플리케이션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교인들의 연락처를 교회에서 수집하여 전도대상자 선정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너무나 신선해서 소름이 끼쳤다. 개인정보로 장사하는 수많은 SNS 업체들과 대체 무엇이 다른가? 아마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배웠겠지만, 세상에 만연한 왜곡된 개방과 공유의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지 못했던 것이다. 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에 바쁜 기독교이지만 이번만은 그 유행을 선도하는 자들의 위선을 좀더 일찍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스 코드를 열어 주신 예수님과 공유의 모범 사례를 보여 준 초대교회의 선배들이 있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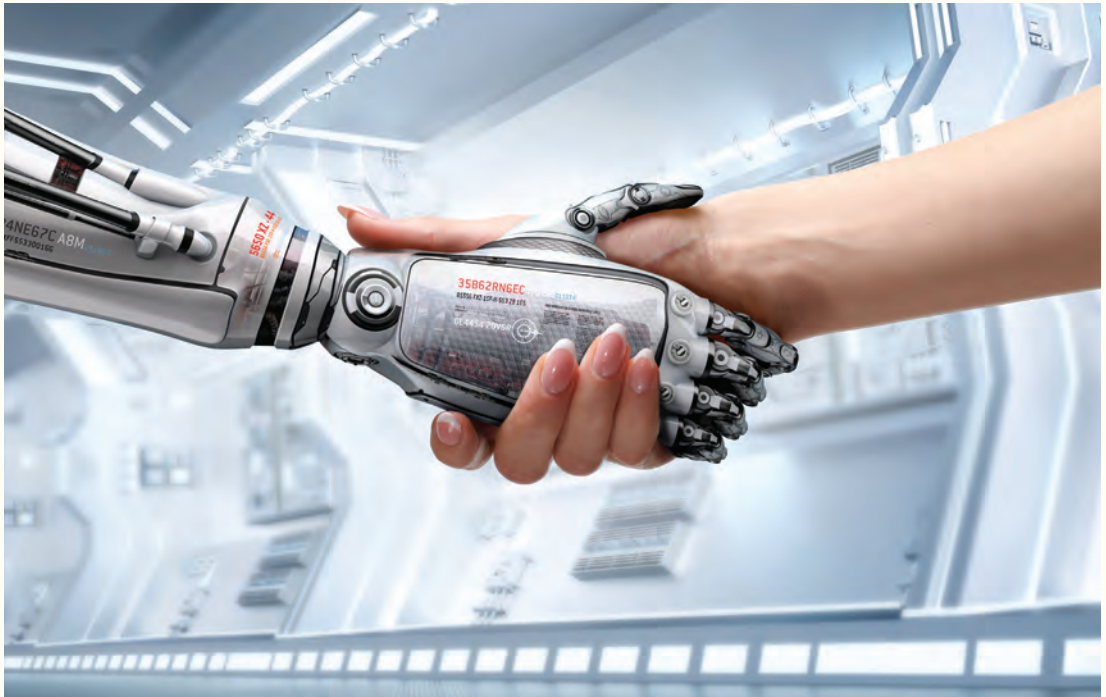
글 | 성기진

캐나다 UBC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퀸즈대학교에서 정치철학과 과학기술학(STS)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라브리공동체에서 연구, 강의, 기독교세계관학교 기획 및 운영 등으로 봉사했다. 일반인 웹마스터들의 서버 운영을 지원하는 1인기업 '포에시스' 대표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6.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사용 허가서.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형할 권리를 주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가치는 기술의 지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우리 삶의 리얼리티란 무엇인가

1882년 3월 조선에 전화가 처음 들어왔다. 그리고 5년 뒤인 1887년엔 전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요상한 것 때문에 흥년이 들었다고 전선을 끊어버렸다. 이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전선이 들어온다. 전기가 들어오자 가로등, 냉장고, 세탁기도 섬에 들어왔다. 덕분에 삶이 편해졌다. 1899년 경 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증기 기관차가 도입되었다.

처음 시승할 때 몇몇 사람들은 구토를 했다.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보면 형편없는 속도였지만, 그 속도는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속도였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말을 많이 듣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곧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앞으로 20년 뒤, 현재 7세 이하의 아이들 중 65%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 말인 즉슨 미래에는 현재의 일 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가 대체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데, 그는 “빅데이터가 의사들의 80%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바이오센서 전문가들은 2024년경엔 전 세계 1조개의 센서들이 인간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고 예측한다. 센서 덕분에 교통사고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는 엄청나다. 2016년 3월 서울에서 이세돌 9단과 알파고가 치른 세기의 대결은 한 사례가 된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다섯 번 바둑을 두었는데, 이 다섯 판의 대결로 구글은 시가총액 58조원의 이익을 얻었다.

프로기사들이 분석한 ‘알파고’의 특징은 대세관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또 알파고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수를 둔다고 한다. 기존의 좋은 수, 나쁜 수에 대해 알파고는 인간과 다른 해석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일까, 알파고의 기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바둑 기사들이 늘어났다. 알파고의 탄생은 ‘인간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란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과거엔 철학이나 문학이 이 물음에 답을 했지만 이제 과학도 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해했다’고 말한다. 개인에게 주어진 이해는 역사, 문화, 언어를 통해 유전되어온 판단의 결과로도 얻어진다. 새로운 발견

과 통찰로 우리의 이해는 여러 번 바뀌었다. 1922년,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주장이 큰 이슈가 되었다. 독일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가 발표한 대륙이동설 때문이다. 베게너는 1915년 『대륙과 대양의 기원』이란 책을 썼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의 책은 독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1922년 개정판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로 번역 출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처음 언급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베게너가 가설(假說)로 대답했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헛소리란 반응이 쏟아졌다. 베게너는 지질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동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의 유사성,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같은 근거에도 조롱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그는 독일에선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웃나라인 오스트리아에서 교수 자리를 얻어 연구를 이어갔다.

“애초에 모든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

우연히 번득였던 발견의 기쁨이 너무 컸기에, 기상학자 베게너는 세인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개의치 않았다. 베게너는 현재 나뉘어져 있는 6개의 대륙이 과거 한 때 모두 한 덩어리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였다. 이 대륙(supercontinent)을 그는 그리스어로 ‘온 땅덩어리’(all lands)란 뜻의 ‘판게아’(pangaea)라고 불렀다. 베게너의 학설은 1960년대 중반 판구조론(plate tectonic theory)이 정립되면서 정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진정한 즐거움은 어떤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아이로봇」이란 영화의 원작자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가 한 말이다. 그는 보스턴 대 생화학 과 교수였지만, 탄탄한 스토리로 SF 소설의 3대 거장이 된 인물이다. 아시모프는 500권이 넘는 다작을 했는데, 그중엔 SF소설과 과학 분야는 물론, 셰익스피어, 성경, 수학, 역사에 관한 책도 있다. 발견(discovery)이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다. 이는 어떤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답을 아는 것과 답을 발견하는 것은 다르다. 변화는 더 나은 시각을 준 발견과 통찰의 결과이다. 과학은 새로운 길을 따라 간다.

로봇의 진화로 대체 못할 기술이 있을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막에 난 오솔길은 아마도 인간이 지구상에 만든 가장 오래된 길일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다. 굽주림과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이동한다. 이들은 시속 5km의 속도로 걷는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쓰레기들이 나뉘는 해변으로 몰려가 휴대전화를 흔든다. 이웃 나라 소말리아에서 오는 저렴한 휴대전화 신호를 받기 위해서이다. 기술은 가난한 난민의 삶도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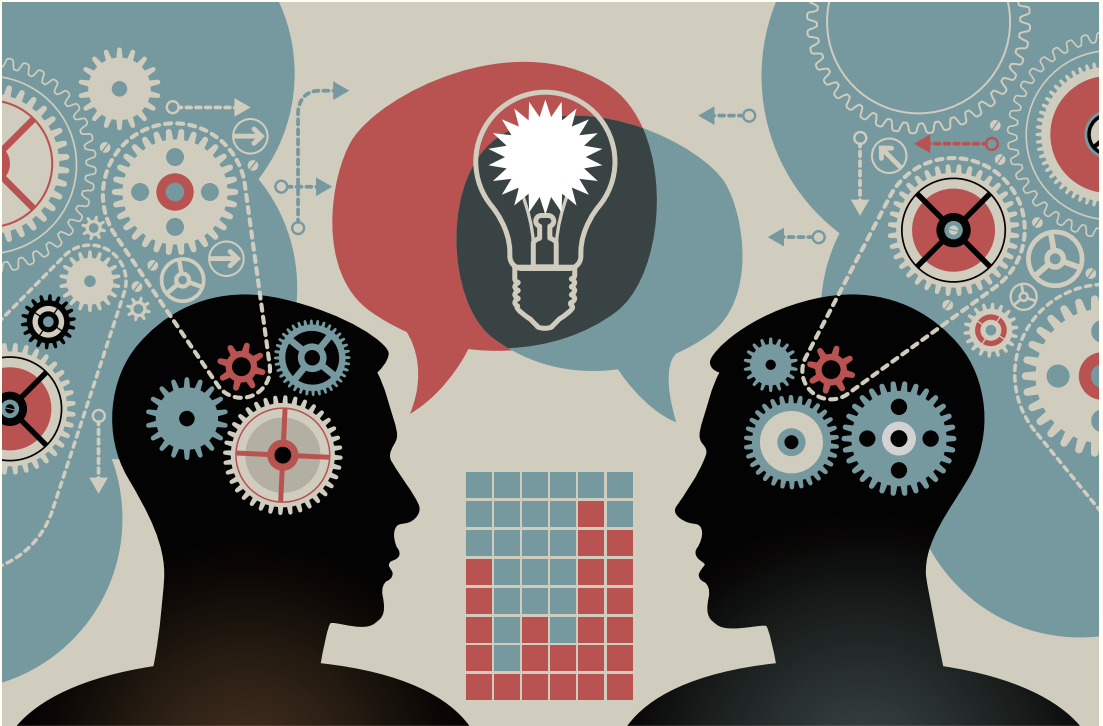
변화의 시대는 벌써 시작되었다. 2030년에 이르면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기술의 발달은 엔지니어, 노동자, 의사, 요리사, 변호사, 교사 같은 직업군을 빠르게 허물 것이다. 물론 드론 전문가, 3D 프린터 전문가, 데이터 폐기물 관리자,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플래너, 안드로이드 로봇 개발자, 증강 현실 엔지니어 같은 직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변화는 직업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재편하고 있기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

요즘 광고문구나 슬로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상상력'인데, 이 단어가 가장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SF 소설이다.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아바타」, 「스타워즈」, 「매트릭스」, 「백 투더 퓨처」 같은 영화부터 「인테스텔라」 같은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영화는 앞으로 이루어질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 영화 「아바타」에선 사람이 타고 움직이는 아바타 로봇이 등장한다. 이것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갖는 한계를 줄여준다. SF 영화에서 인간은 점점 강력한 힘을 가진 기계를 닮아간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들은 인간의 한계를 뚫고 강한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준다. 그런데 영화에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블레이드 러너」에서 인간이 전투나 위험한 노동을 대신하게 시키려고 만든 인조인간이 있다. 레플리칸트(Replicant)로 불리는 이들은 4년의 수명을 갖고 살지만, 인간과 거의 동일하다.

이들이 외계 행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일부는 지구에 몰래 숨어들었다. 이 사실을 알아챈 경찰은 이들을 찾아내어 처형한다. 그 일을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라 불리는 경찰이 맡는다. 블레이드 러너는 테스트 기계를 통해 인간과 레플리칸트를 구별해 내고 레플리칸트를 사살한 뒤 '폐기했다'고 말한다. 즉 레플리칸트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를 찾아 수명을 연장 받으려던 레플리칸트는 결국 제거되고 만다.

마지막 남은 인물이 로이인데, 그 역을 맡은 루거 하우어가 산성비를 맞으면서 하는 대사가 영화의 백미로 꼽힌다.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주인공 데카드와 대결을 펼친다. 데카드가 건물 난간에 떨어져 추락하는 순간, 로이가 손을 뻗어 구한다. 그리곤 빗속에 앉아 이렇게 되뇌인다. "난 너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것들을 봐 왔어 ... 그 모든 기억이 곧 사라지겠지, 빗속의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인조인간 로이가 데카드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



영화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 영화는 인간이란 세계를 이해하는 강력한 렌즈인지도 모른다. 로이스 타이슨(Lois Tyson)이 쓴 문학 비평서가 있다. 『비평 이론의 모든 것』(Critical Theory Today)이다. 재미난 것은 저자가 폭우를 피해 주차장 차안에서 자크 데리다의 「인문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놀이」란 글을 읽었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대목이다. 그가 울은 것은 데리다의 글이 감동을 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읽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았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각 시대마다 '시대정신'(spirit of the age)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개념이 있다. 이 시대정신은 다수의 여론으로 형성되기에, 개인이 그 영향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몇 해

전 애플이 신형 아이패드를 발표했을 때, 그것을 사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다. 아이패드를 살 여유가 없었던 그 청년은 자신의 신장을 매물로 내놓았다. 청년은 신장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어 했다. 그에게 아이패드는 삶의 목표였고 자신의 전부였다.

시대마다 필수품이 있었다. 요즘 성공한 남자들이 비싼 스위스 시계로 자신을 차별화시키지만, 한때 몽블랑 만년필이 유행했었다. 그 이전엔 고급 셔츠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시계, 만년필, 셔츠는 당대의 필수품이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출간되었음에도 여전히 읽혀진다. 바로 소설 속 인물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답을 오해하면 개츠비처럼 성공이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인간에게 노동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노동은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인간은 직업

을 통해 사회 속에 주어진 자신의 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직 혹은 실업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첨단사업이든, 오지탐험이든, 도전이든, 항상 달콤한 열매는 준비하고 노력한 자에게 돌아간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문젠의 남극탐험,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보라. 그들은 실패를 도전으로 읽었다. 때때로 무모함이 지나쳐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이들은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쥔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요즘 직장인들은 경제적 자유로움과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달콤한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기초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더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은 어떤 이에겐 삶의 여유를, 어떤 이에겐 경제적 부유함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격랑이 덮칠 때가 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두렵고 낮은 감정이 의식 속으로 밀려든다. 상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말하지만, 깊은 상실은 치유가 쉽지 않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지 감정을 다스리고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약함이다. 장 자크 루소는 『에밀』 4권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인간을 만들며, 행복은 연약함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인간은 기술을 통해 안정과 편함과 자유를 추구하지만, 어떤 이는 우리 안에 내재된 폭력성을 경계한다. 자신과 타인의 불안정성과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기술은 우리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앞으로도 과학은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바꿔 갈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와도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뽑어내는 산소로 두 사람이 하루를 산다.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은 다들 큼직한 열매라고 여기지만, 어떤 이는 또 다른 사과나무라고 생각한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삶을 바꾸고 시대를 바꾼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4/22일자 발행)



글 | 이정일

동국대 영문과 강사.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가 상상한 미래 사회의 풍경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석사)



들어가는 말 :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 풍경

영화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풍경이 대부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많은 과학자들이 영화를 통해 영감을 얻어 미래를 준비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영화와 미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일상과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과학기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구현은 가능한지, 그러한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을 가져다줄지 이전보다 더 가깝게 고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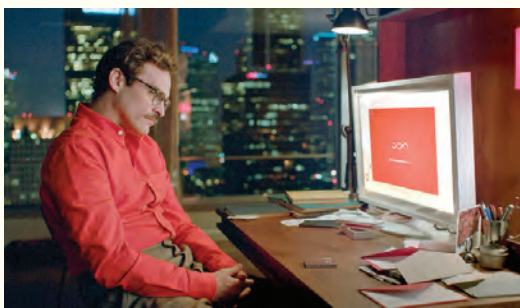
영화는 스토리텔링 화법과 이미지라 하는 예술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류 고민거리와 이에 대한 상상력을 대중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좋은 SF 영화를 만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다.

나에게 미래 기술사회에 대한 통찰을 안겨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안겨준 4편의 영화를 통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1) 영화 <Her>를 통해 근 미래의 풍경을 엿보다

웬지 가장 조만간 실현될 것 같은, 그래서 낯설지 않고, 멀지 않은 근 미래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영화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Her>가 아닐까 싶다. 영화에서는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고 근 미래라는 설정을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이 인공지능 OS와 사랑에 빠져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영화 주인공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루니 마라)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렛 요한슨)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Her>

도르'는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OS와 더 깊은 교감을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인공지능 OS와의 사랑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갖을 수 있다. 하지만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 현대인의 풍경을 볼 때, 영화의 설정이 그리 무리한 설정이 아님을 생각하게 된다.

아내는 자신과 결별하고 고작 인공지능 OS에게 사랑을 느끼며 새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테오도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이 진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짝하긴 하네.." 그녀의 말은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 작은 기계와만 교감하는 현대인을 향한 말처럼 들린다. 인공지능 OS는 대화의 기술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는다.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건설적인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 못지 않은 유쾌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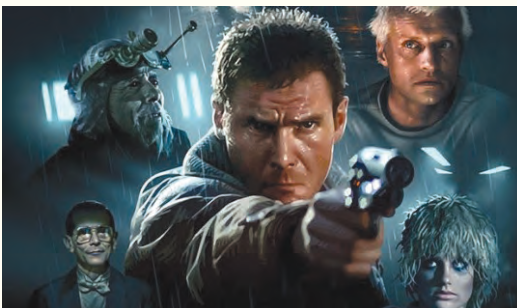
영화 속에서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OS인 사만다의 데이트 장면은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이다. 영화는 둘의 교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까지 하다. 심지어 사만다는 테오도르와의 더 깊은 교감을 위해 '육체 없음'을 극복하고자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시도하는데 이 장면 역시도 그럴 듯한 미래의 모습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근 미래에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고 대화를 나누기보다 인공지능 OS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 성숙의 길이 인공지능 OS와의 관계 속에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영화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 큰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만다가 테오도르, 단 한 사람만의 '그녀'가 아닌 것이었다. 사만다는 어느새 진화하고, 확장되어 수천 수만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OS인 '그녀'는 마치 신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사만다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능력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지치지 않는다. 그녀는 완전하면서 진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마치 신처럼. 영화는 어쩌면 인공지능 OS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테오도르가 그녀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때 항상 채광이 아름답고 강하게 비춘다. 그 채광은 단순히 멋진 화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빛과 같은 세상에 편재하는 신과 같은 '인공지능 OS'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영화에서 투입한 미장센(mise-en-scene) 기법이다. 만약 강한 인공지능이 실현 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진화하는 로봇이 발명된다면 그 로봇은 분명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간을 조종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2) <블레이드 러너>, 시뮬라시옹(Simultion)의 시대
미래 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풍경을 우울하면서도 우아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이다. 이 영화는 1980년도 작품인데, 서기 2019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해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영화 속 시간은 2년 남짓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영화에서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있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풍경은 언젠가 찾아올 내일처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다.

2019년 11월 LA, 400층이나 되는 높이의 건물들로 가득 찬 거리와 끊임없이 번쩍이는 레온등과 광적 행위가 만발한 도시, 지구의 파괴와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해 다른 행성으로 식민지 이주가 본격화된다. 한편, 2주전 남자 셋, 여자 셋이 식민행성에서 탈출, 23명을 죽이고 우주선을 탈취하여 지구로 잠입한다. 이들은 외견상 진짜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한 복제 인간 리플리컨트이다. 때문에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두목격인 전투용 로이 배티(Roy Batty: 룯거 하우어 분)와 역시 전투용 리온(Leon: 브라이언 제임스 분), 살인 훈련을 받은 조라(Zhora: 조안나 캐시디 분), 식민행성 군인 클럽 소속의 위안부 프리스(Pris: 다릴 한나 분)가 그들이다. 이에 경찰(Captain Bryant: M. 에머트 월쉬 분)은 복제인간을 처단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 블레이드 러너인 데카드(Deckard: 해리슨 포드 분)를 호출한다.

영화가 예상한 시기는 이르지만 언젠가는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간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실제로 NASA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 있다. 한국에서 SF 천만관객의 이목을 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역시도 그와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다. 칼세이건은 "이 넓은 우주에 지구 밖에 생명이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다."라고 말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행성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선택하신 행성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구는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행성이기에 수명이 다하면 버리고 떠나도 되는 곳일까? 조만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

로운 행성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영화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복제인간의 모호한 경계'다. 타이렐사는 인간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인간보다 더 진화된 복제인간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행성의 식민지화를 위해 그저 노예로 이용된다. 그들은 그저 편리함을 위해 도구로 쓰여진 후 버려질 뿐, 그 어떤 사람다운 대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제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처형의 명령이 내려진다.

여기서 영화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인간이 복제인간을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 복제인간인 로이가 그를 살려주고 자신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도 기억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시와 같은 대사를 남긴다. "난 네가 상상도 못할 것을 봤어. 오리온 전투에도 참가했었고, 탄호이저 기지에서 빛으로 물든 바다도 봤어. 그 기억이 모두 곧 사라지겠지. 빛 속의 내 눈물처럼...곧 죽을 시간이야."라고. 그의 독백은 묘한 울림을 준다. 더 흥미로운 점은 복제인간인 로이가 죽을 때에 비둘기가 날고, 손에 커다란 못이 박힌 상태여서 마치 예수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다. 영화는 로이가 인간을 살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구원자 예수의 모티프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복제인간 로이를 더욱 영웅처럼 신성시한다.

영화는 과연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사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식된 것이지만 삶의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복제 인간을 처형해야 하는 임무를 받는 데커드가 복제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분명 이 문제에는 다양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딜레마에 처하

게 하는 주제일 것이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는 지금의 시대를 '시뮬라시옹'의 시대라 불렀다. 이는 "모방된 것이 실물보다 더 실물답다."라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복제 인간 구현이 가능한 시대에는 과연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다. 오히려 원본보다 복사본이 더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소재의 영화인 <아일랜드>에선 복사본인 복제인간이 원본의 주인을 없애고 삶의 주인이 되는 아이러니를 화끈하게 보여준다. 시뮬라시옹의 의미를 더 확장하면, 현실(Reality)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디지털 공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조만간 Second World를 창조할 것이고, 그 세상은 원본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실재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워쇼쇼키 남매가 만든 영화 <매트릭스>는 이 시뮬라시옹의 모티프를 잘 보여준다. 주인공 네오는 종종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데, 사실은 그 꿈이 실재 세계였고, 현실이라고 여겼던 삶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허상의 세계였다. 영화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허상의 디지털 세계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뮬레이션 된 세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는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독특하게도 미래 사회의 모습을 아주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신을 더욱 바깥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더욱 화려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은 해소되어지지 않고, 사회의 혼란은 더 극심해지

는 것 같다.

과학 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할까? 더 절망적으로 만들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술 발전이 오히려 암울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3) 로봇과 인간의 경계, <공각 기동대 : 고스트 인더 셸>을 읽다)

영화 <공각 기동대>는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원작인 애니메이션보다 더욱 과감하게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그리고 있다.

강력 범죄와 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엘리트 특수부대 섹션9.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탄생한 특수요원이자 섹션9을 이끄는 메이저(스칼렛 요한슨)는 세계를 위협하는 음모를 지닌 범죄 테러 조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첨단 사이버 기술을 보유한 ‘한카 로보틱스’를 파괴하려는 범죄 테러 조직을 막기 위해 엘리트 특수부대 섹션9이 나서기 시작하고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메이저는 자신의 과거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스스로의 존재를 찾기 위한, 그리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거대 조직과의 전투가 시작된다.

영화를 보면, 미래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인간의 뇌를 USB처럼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 하거나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다. 심지어 뇌만 유지한 채, 로봇의 몸을 입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저이고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다. 그녀는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루퍼트 샌더스의 <공각 기동대 : 고스트 인더 셸>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뇌’라는 것은 과학 기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과거에 마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신에 대한 감각 등 그 모든 것이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의 감정이 뇌 속에서 어떻게 조종되는지를 재미있게 잘 보여준다. 많은 뇌 과학자들이 그 애니메이션이 팩트에 근거한 스토리라며 높게 평가했다.

뇌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을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의 정체성은 유지된 채 노화되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영화는 그런 일이 가능한 미래를 전제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로봇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될까? 그것이 진화된 인간의 모습의 끝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그저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끝없는 기술의 욕망은, 결국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 로봇과 결

합된 인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처럼 미래의 기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과는 좀처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화 <공각기동대>가 그리는 미래의 풍경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많이 닮아 있다. 건물은 더 높아지고 화려해졌으며 차가 날라다니고 곳곳에 VR 광고가 대중화되어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도시 구석구석은 낡고 폐허와 같다. 두 영화가 미래의 풍경을 묘사하는 미장센이 유사한 건, 아마도 원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가 이후의 SF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인간관이 너무 낮설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런 SF 영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감상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맺는 글 : 영화 <모던 타임즈>를 통해 보는 미래 기술 사회 속 인간

과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이런 기술적 진보는 어마어마하고, 또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여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더욱 궁금해진다. 아마도 영화에서 흔히 보듯 인공지능 로봇이 더욱 대중화되어서 인간이 서 있던 많은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또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몸이 부분적으로 로봇과 결합한 '트랜스 휴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종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과학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단순히 환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 시대의 현주소를 인문학적으



찰리 채플린 감독의 <모던 타임즈>

로,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성찰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술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할지,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영화 <모던 타임즈>는 기술이 효율성을 '선'으로 여기고 인간의 기술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시대에 인간이 처한 위기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처한 주인공을 통해 인간으로써 끝까지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주 오래 된 흑백 영화이지만, 재미도 있으면서 기술 시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는 과학 기술을 맹신하는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것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최첨단 급식기를 실험하는 장면이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급식기가 알아서 동그란 식탁을 돌려가며 음식을 입 속에 넣어준다. 그런데 기계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음식이 아닌, 나사를 입어넣어주고, 옥수수로 입을 가격하기까지 한다. 결국 앉아있던 남자는 급식기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짧은 코믹한 장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고장이 날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크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명장면이다.

영화 속 주인공 남자는 근대화라고 하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인간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여겨지게 되고, 결국 너트에 집착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된다. 결국 그는 그 시스템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신병원과 감옥을 오가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그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완전히 이탈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약한 고아를 대신해 자신이 죄의 누명을 덮어 쓸 만큼 인간본연의 인간성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영화의 끝에서 결국 노래와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시스템에서 이탈됨이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게 하였고, 더욱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끌기도 한다. 모든 기술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미래의 풍경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래에 과학 기술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기술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인공지능 로봇으로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며, 또 새로운 세컨드 월드를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고, 인간의 비인간화는 점점 심해지며, 사회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 외적인 모습은 진화시켰지만, 더 근원적인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퇴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즘 4차 혁명 시대를 운운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담론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며 어떻게 미래를 맞이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너무도 빠르

게 과학 기술이 진화하고, 로봇이 인간의 많은 생산 활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SF 영화를 보며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이 아닐까 싶다.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능력 말이다.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속성마저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모든 자리를 로봇에게 내어주고, 인간은 로봇의 노예 자리로 뒤바뀌게 될지 모른다.

유명한 화가인 폴 고갱의 작품 중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림이 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볼 때면 폴 고갱이 던졌던 질문을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하게 된다.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한 인류 끝의 모습은 어떠한일까?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행복하고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성찰 없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기술 사회는 인류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지 모른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정해진 삶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딘가 어리석어보이지만,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인간의 삶의 모습일지 모른다.



글 |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석사. 영화와 신학,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현재는 중고등학교와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영화예술 교육강사로, 그리고 독립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까?

이춘성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1. 기술의 충격

『공감의 시대』와 『3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국가주도, 대규모 공장, 대량 생산으로 대변되는 종전의 산업체계가 개인을 중심으로 재편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 이유는 미래 산업으로 불리는 풍력이나 수력, 태양광과 같은 대체 에너지 산업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리프킨은 대체 에너지 산업의 경우 대형발전소 보다는 개인 중심의 생산 체계가 더 효율 적이라고 분석 하였다. 또한 3D프린터의 대중화는 더 이상 공장 중심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필요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리프킨은 이러한 미래 산업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technic)은 공감(empathy)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공감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



지금 읽기

『기술의 역사』

자크 엘룰.

박광덕 옮김.

파주:한울, 1996.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필요를 빨리 알아차려 이를 공급하고 자신의 필요를 상대에게서 얻어내는 것이 그가 말하는 미래의 공감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이 미래에 필요한 이유는 생산 자체가 개인화 될 경우 각자의 필요와 가치가 다르고, 지금까지처럼 국가나 일부 생산자들(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왜곡이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고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물물교환)의 장점인 가치의 개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현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형 생산라인을 보유한 회사들이 아닌 아마존(Amazon)과 같이 소비자의 필요를 예측하여 적합한 생산자와 연결해 주거나, 구글(Google)처럼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플랫폼 기반(platform-based)의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예측과 변화에 대한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기에 강력한 충격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 용어가 대중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이후 일어난 산업혁명의 제 4기라는 뜻이다. 1기는 엔진 기술(증기기관), 2기는 전기 기술, 3기는 컴퓨터 기술 등이 각각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4기는 아직 어떤 특정 기술로 규정할 수 없다. 모든 분야, 예를 들어 생물학, 의학, 농업, 화학, 물리학, 천문학, 기계 공학, 컴퓨

터 등의 현대에 언급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이다.

지식의 통합은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가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지식을 통합하고 인간처럼 사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스토리를 보면서 공상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인공지능(A. I.) 소프트웨어인 알파고가 세계적인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을 2:1로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컴퓨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단지 신기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두려움과 공포였다. 철학자, 소설가 등은 미래에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견했지만 대중들은 이는 먼 미래이거나 공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계최고의 바둑 기사의 패배와 인간이 만들고 발전시킨 가장 오래된 두뇌 놀이인 바둑마저 기계에게 내어 주었다는 실망감과 충격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강력한 충격을 주면서 우리에게 가까이오고 있다.

2. 인간기술과 진보의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현대인들을 위한 종교가 되어 현대 세계를 견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경제학자인 하우츠바르트(Bob Goudzwaard)는 근대의 이상을 ‘진보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다. 또한 자크 엘룰(Jacques Ellul)도 ‘진보’라는 낙관론이 현대 기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별히 자크 엘룰은 약 40년 전 그의 기술에 대한 삼부작의 첫 책인 『기술의 역사』를 통해 기술의 진보가 앞으로 어떤 방

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견하였다. 그것이 바로 '인간기술'이다. 그는 이 기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더 이상 이러한 기술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의 부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렴현상은 극장영사기의 수렴현상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각각의 영사기는 고유의 색상, 밀도 및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영사기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과는 개별적인 영사기를 바탕으로 해서가 아니라 비추어진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계측될 수 있다. 인간기술의 경우가 바로 이리하다. 여러 개의 기술이 인간을 향해 집중되며, 개개의 기술자들은 그의 기술이 그 대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의 집중인 것이다. (『기술의 역사』, 410쪽)

원래 기술이란 인간의 부족한 힘과 정밀성을 보충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인간기술'이란 인간의 각각의 부분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모든 부분을 기술(기계 기술이든 유전자 기술이든, 인공지능이든)로 대체하는 것이 결국 인간기술의 종착점이다. 인간은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며, 결국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보충하는 수단이 아닌 인간 그 자체가 된다. 과거의 기술은 인간 외부에 존재했지만 이제 기술은 인간 안에 존재하고, 인간화되어 인간이 되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최종 단계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하고 사고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다. 인간의 다른 부분은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이식을 통해 대체할 수 있었다. 부족

기술이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옳음으로 규정할 때,

기술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탑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기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폐지의 시대가
결코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

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뇌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더구나 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상이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기술, 3D프린터 기술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뇌를 대체하고 3D프린터 기술로 인간의 복잡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주춤했지만 과학 기술의 진보를 종교로 믿는 현대인들에게 이들 기술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인간기술을 이루기 위한 진보 이데올로기의 종착역이거나 정거장인 셈이다.

3. 인간폐지

4차 산업 혁명이 인간기술의 종착역이 될지 정거장이 될지 아니면 공상으로 끝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인간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열차는 출발



지금 읽기

『인간폐지』

C. S. 루이스.

이종태 옮김.

서울:홍성사, 2006.

했고, 이 열차는 결코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필요로 고안된 기술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1943년 2월 24일 영국의 더럼 대학교(Durham University) 강연을 통해 루이스(C. S. Lewis)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

인간의 자연정복이라는 것... 그 최종 단계는 인간이 우생학, 태아기 조작, 완벽한 응용심리학에 기초한 교육과 선전 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다가올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바로 인간에게 항복하는 자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전쟁은 최종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그 인간 제작자들은 전능한 국가와 저항할 수 없는 기술의 힘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정말로 모든 후손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작자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폐지』, 73쪽)

이 강연이 나치의 전체주의가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친 2차 세계대전 중에 행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치를 몰아내면 전체주의가 종식될 것이며, 전쟁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나치를 몰아내고 전쟁을 종식시킨다 하여도 전체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새로운 전체주의는 국가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 날 것이며, 이것들은 전쟁 없이도 쉽게 인간성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전쟁이 준 뜻밖의 선물이기도 했다. 전쟁은 인간의 상상 속에만 있던 기술들이 구현되고 실험될 수 있도록 자본과 열정, 도덕적 당위성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인간을 향한 실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해졌다.

『침묵』의 작가로 유명한 앤도오 슈우사꾸는 그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 『바다와 독약』을 통해 종전 직전인 1945년 5월 17일~6월 2일에 걸쳐 큐우슈우 대학의 학부의 요청으로 미국인 포로 8명에게 실제로 행해진 생체실험을 소설화 하여 1957년에 발표하였다. 이 소설에는 5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가 나온다. 이들은 모두 생체 실험에 가담하는 데, 이 중에 스구로라는 단 한명의 수련의만 도중에 포기하였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괴로워하는 스구로에게 다른 수련의인 토다는 한심하다는 듯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뉘가 괴롭다는 거야?”

“그 포로를 죽인 거 말이야? 그래도 그 포로 덕에 몇천명의 결핵환자 치료법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죽인 게 아니고 살린 거야. 인간의 양심 따위는 생각하기에 달린 거 아니야?”

“나나 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의학부에 있어서 포로를 해부한 것뿐이야. 우리를 벌주는 사람들도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세상의 벌이란 그저 그런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설에 나오는 군의관을 비롯한 장교들이다. 이들은 생체실험 후에 신입장교에게 먹



지금 읽기

『바다와 독약』

엔도오 슈우사쿠.

박유미 옮김.

파주:창비, 2014..

이기 위해 죽은 포로의 생각을 가져갔다. 인간은 이들에게 실험 도구이며, 동시에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인간을 위한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반문한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그를 인간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또한 인간성이란 무엇인지도... 누구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인간됨을 규정하는 인간 공통의 인간성이란 과연 존재하거나 하는지 말이다.

4. 윤리적 기술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참된 인간성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는 이러한 고전적인 인간성의 정의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루이스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도' 바깥으로 나갈 때 그들은 허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꼭 불행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예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품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최종 정복은 결국 인간의 폐지를 의미합니다. (77쪽)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뇌 과학, 인공지능 등 기술과 관련된 현대인들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들은 과거에 단순히 인간을 돕고 편안하게 해줬던 순진한 기술이 아니다. 이 기술들은 스스로 인간이고 싶어하는 기술이며, 인간을 대체하고자하는 기술이다. 필자는 기술 비판론자이거나, 기술 반대론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술 낙관론자이며 기술 지지자이다. 하지만 그 중착역이 다르며, 어디에서 멈춰야할지 그 기준이 다르다. 인간의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과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은 진보와 효율성이 아닌 이웃을 우선에 뒀야 한다. 기술이 도덕적 옳음의 편에 있을 때, 기술은 계속 지지받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옳음으로 규정할 때, 기술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탑을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기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간폐지의 시대가 결코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



글 | 이춘성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



루터의 도시를 가다

15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3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는 자신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보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학생이 보라의 집 문을 두드렸다. 몹시 당황하는 학생의 목소리에서 루터라는 말이 어렴풋이 들려 왔다. “보라!! 루터 선생님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보라는 수녀원에 있을 때 산과 들로 나가 약초를 캐어 생약을 달이는 기술을 습득했다. 사람들은 보라를 의원처럼 여기고 있었다. 보라는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루터에게 정성스레 고른 약초

를 다려 마시게 했다. 좀 전까지 배를 움켜쥐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루터는 보라가 다린 약초를 마시고는 고요히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침대 옆에서 병상을 지키던 보라는 고개를 떨구고 잠에 빠졌다. 방안에 햇불이 어너거렸다. 보라는 문득 인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고 보니 루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루터는 보라가 잠에서 깨자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루터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녀는 알 것 같았다. 그녀 또한 루터를 다른 어느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1525년 6월 13일, 루터와 보라는 드디어 결혼 예식을 올렸다. 비텐베르크는 축제 분위기에 싸였다. 루터를 통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자유를 얻게된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가정의 신성함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다. 가정은 부부의 사랑이 모태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이 깃드는 곳이다. 그리하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의 장소였다.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모범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비텐베르크 성 밖,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 결혼식은 불경스런 신성모독이었다. 그들에게 루터는 파계한 수도승이요, 보라는 수녀원을 탈출한 마녀라는 것이었다. 로마 교황이 공개적으로 파문한 루터의 결혼식이 신성하다고 쫓겨세울 리 만무하다. 반대파들에게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모진 공격을 받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가정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며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공동체라는 깨달음이다. 루터는 보라와 결혼을 하므로 개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보라가 루터의 살림을 도맡아 줌으로서 루터가 일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친구가 이런 이상한 사진을 보내왔다.

보니 안심이 되었다.

왜 안심했을까?.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BE+LIVE+R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드 1탄,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문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16)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



펀딩마감
5/31

WESLEY BOOKFUND NO.1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학문이론과 종교적 믿음의 상관관계

강영안 교수 강력 추천!

로이 클라우저 지음 | 홍병룡 옮김 |
520쪽 | 35,000원 | 아바서원

종교와 무관하다고 여겨진
이론들의 숨겨진 전제를 파헤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이 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종교적 중립성을 하나의 신화로 규정하고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모종의 종교적 믿음이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 웨슬리 북펀드에 참여하는 월드뷰 회원이 받는 리워드 ☺

- (1) A형 (3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정가 35,000원)
 - (2) B형 (6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미니)] 1권
- +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드 #2> 제작비로 적립합니다.

☺ 참여방법 ☺

북펀딩 참여 의사를 메일로 전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출간 후 책을 보내드립니다.
*메일발송시 메일제목에 “웨슬리북펀드” 기재,
연락처(손전화), 주소를 꼭 적어 주세요.
*입금시 꼭 “입금자명(웨북)” 으로 입금해주세요.

이메일 info@worldview.or.kr (세계관동역회) | abbabooks@hanmail.net (아바서원)
문의 02-754-8004 (세계관동역회) | 02-388-7944 (아바서원)
계좌 신한 100-030-510094 (예금주:협동조합아바서원)

웨슬리 북펀딩 캠페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책만드는 협동조합 아바서원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문구는 사도신경에서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도신경에서 가장 경시되거나 무시된 부분이기도 하다.¹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사실이 경시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번역에도 나타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가 생략되었다. 둘째는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번역하면 지금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은 별로 없고 장차 재림하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읽힌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신자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 또한 자연히 약화될 것이다.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심 (50문)

50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오른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은 사도신경의 첫 조항에도 나왔는데,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서도 다시 나온다. 짧은 신조에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다룰 때에 설명한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전능하다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채워진 개념이다.”²

2. 로호만, 『사도신경해설』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57쪽;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월드뷰』 (2016년 10월호), 39를 참조하십시오.

1. F. Klooster, Our Only Comfort I, p. 633.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이나 왼편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말은 신인동형적 표현법(神人同形, anthropomorphism)이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권능과 권위의 자리를 표시한다. 그러한 예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출 15:6. 참조. 출 15:12; 시 17:7; 20:6; 21:8; 98:1 등)라는 찬양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왕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가르친다(벧전 3:22).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22:1)에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어린양이 ‘하나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공간 개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공간을 초월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보좌’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영광 중에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 하는 예언의 성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일은 자동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간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의도적으로 시편 110:1을 인용하셨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던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께서 참람한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형의 판결을 내렸다(마 26:63-66).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2)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행하시는 일

구약의 성전에는 ‘의자’가 없다. 염소나 황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의 일을 완성하고 의자에 앉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의 일을 마치고 앉으셨다.³ 여기에서 앉으셨다는 말은 할 일이 없이 가만히 계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구원의 일을 다 마치고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뜻이며, 보좌에 앉으셔서 안정된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뜻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는 오른편에 앉아 계심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분이 교회의 머리심이 공적으로 선언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내려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듯이, 그분이 하늘에 오르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 된 교회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되었다(엡 2:6).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교회에 알리시고, 또한 의로우신 대언자로서 그 백성의 죄를 가려 주신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군림하

3. J. van Bruggen, 69



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며,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나가신다(엡 5:25-27).

둘째, 성부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성부께로부터 받으셨는데, 이것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으신 것이 아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전에는 자신의 권세를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라고 선언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고, 그러한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일을 마치신 후에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권세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권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종보자가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사명을 각성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빛으로 존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중

보자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엡 1:10; 4:10).

2.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 (51문)

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肢體)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묻고 두 가지로 답한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단순한 사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 혹은 ‘위로’의 관점에서 살피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첫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부에게서 성신을 받아 교회에 보내신 일이다(행 2:33). 오순절에 성신을 보내시므로써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성신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도들의 전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죄를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행 2:38). 성신을 ‘선물’로 주시므로써, 결국 그분을 통하여 회개와 사죄, 영생 등 많은 신령한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행 5:31). 회개와 사죄 같은 선물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지만 모두 하늘의 선물들이다. 영원한 생명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받는 선물이다.

둘째, 우리의 증보자는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러한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마 16:18). 이 말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신자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요 10:28). 사람은 몸에만 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마 10:28).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방식도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흠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방식대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신자가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보존하신다.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다.

3. 사자와 어린양

C.S. 루이스의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는 증보자의 이미지를 ‘아슬란’을 통하여 ‘양’과 ‘사자’로 표현하였다. 하얀 마녀의 마법에 걸린 에드먼드를 구원해 내려고 마녀에게 굴복하여 반항을 하지 않고 양처럼 털이 깎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루이스는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

‘잠깐! 먼저 저 놈의 털을 깎아 내, 털을 밀어 버려!’
잔인한 아수 하나가 커다란 가위를 들고 앞으로 나와 아슬란의 머리 곁에 웅크리고 앉자, 마녀의 추종자들로부터 비열한 웃음소리가 까르르 터져 나왔다.
씩둑!씩둑!씩둑! 가위질 하는 소리가 들리며 굵스굵스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잔인한 아수가 뒤로 물러서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두 아이는 그제야 갈기가 없어져 전과는 아주 판판으로 왜소해 보이는 아슬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적됨 또한 달라진 이슬란의 모습을 보았다. 한 놈이 소리쳤다.

그 소설은 결국 돌 제단에 묶였던 아슬란은 다시 부활하고 에드먼드는 죄를 회개한 후에 정의의 왕이 되고 아슬란은 루시와 수잔과 함께 뒹굴면서 즐기는 이야기로 끝난다.

루이스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렇게 사자와 어린양으로 묘사하였는데, 그의 영감의 출처는 요한계시록 4장이다. 인





Fr. Raphael (1967년)

봉한 책을 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울고 있을 때에, 장로 중의 하나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 5:5) 하고 말하였다. 사도 요한이 유대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에 본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양’이었다(계 5:6). 그 어린양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계시록의 마지막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마친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다. 그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지만, 여전히 죽임 당하신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통치권을 시행하신다.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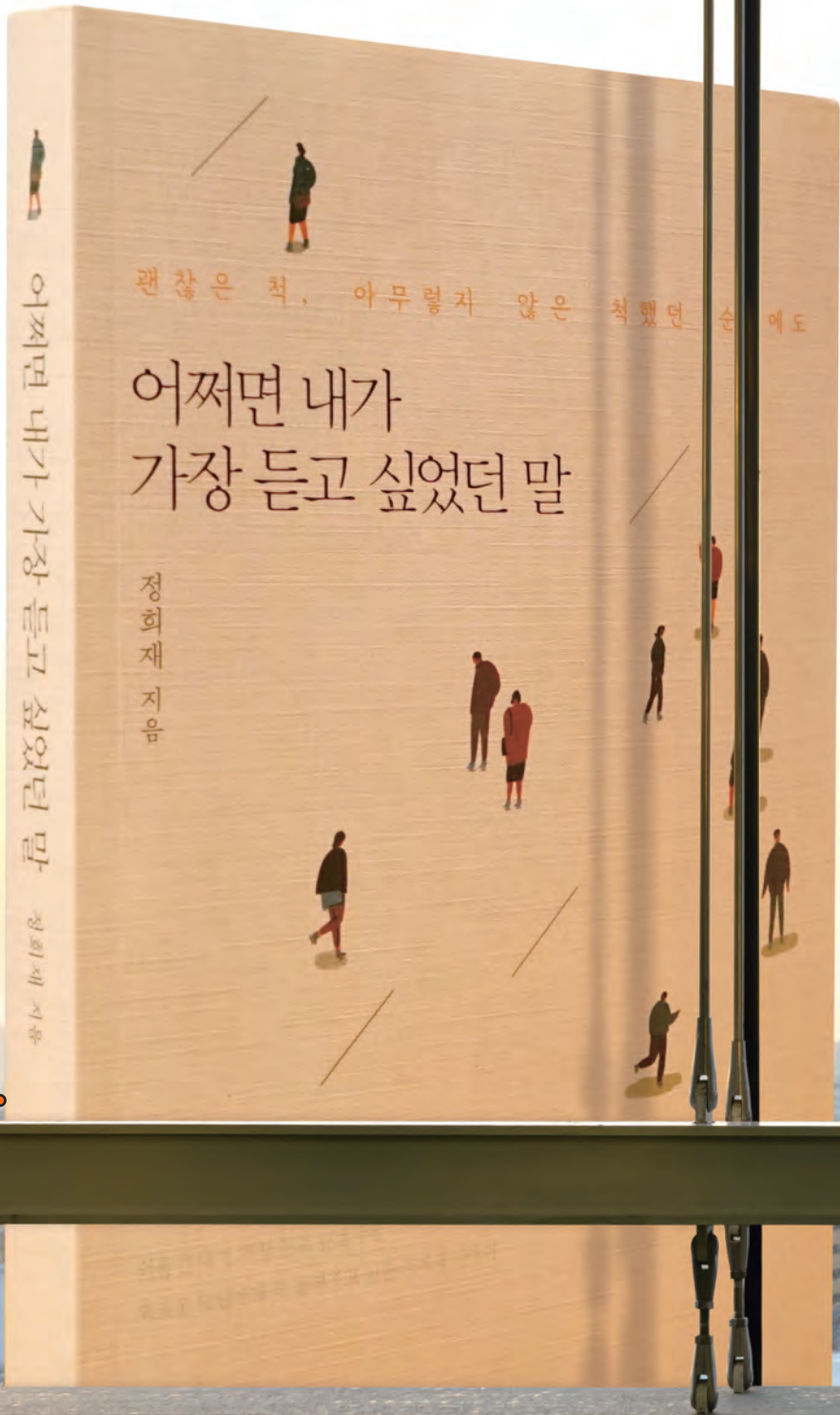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하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완성된 통치권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우리도 죽임 당하신 여호와와 종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최후의 승리 전까지는 고통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나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혼란한 모습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어린양이 역사의 중심이고, 그분이 일곱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보고서 거기에서 큰 위로를 얻어야 할 것이다(계 5:5-6: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Recommend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 | 캘리온

하루하루 애쓰며 살아가지만, 아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이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슬펐던 그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해 보지만 한없이 외롭던 그 순간에 우리를 버티게 해 준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건네는 다정한 말 한 마디가 아니었을까요?

Thankgive's Think

어쩌면 행복이 먼저가 아닐지 모른다

“힘내요. 잘 될 거예요. 그런 말 이젠 지겨워. 나도 그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언젠가 좋은 일, 앞으로 그래 한 번쯤은 있겠지. 꿈에서나.” 어떤 가요의 노랫말이다. 조금만 냉정해지면 알게 된다. 다 잘 될 거라던 주변 사람들의 예언이 현실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2017년의 현실은 더욱 매섭다.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산다. 그래서 행복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쳐내느라 안간힘을 쓰지만 장애물은 아무리 쳐내도 다시 고개를 든다. 그러니 인생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행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더 악бар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매섭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사는 행복 추구자 인간은 자주 좌절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이럴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힘내라는, 잘 될 거란 격려가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격려의 말을 믿고 힘을 내봤는데 현실은 그저 제 자리가거나 심지어는 이전만 못했던 경험이 많은 까닭이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자기 인생을 향해 빠져있는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서로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위로하며 행복을 향한 기대를 부추기지 말자.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실체 없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사랑할 수 없더라도 불편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자. 자기 몫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최선’을 추구할 때 ‘그 자리에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랄’테니 말이다.

keyword

영혼없는 위로는 금물 | 위로는 옆에 있어 주는 것

Thanks Book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침묵
엔도 슈사쿠
공문혜 옮김 / 홍성사

믿음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이 질문은 믿음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다. 남들이 설득해서 억지로 생기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억누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물론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안에서 솟아나야 한다. 남들이 아무리 “채는 신앙이 없는 애야.”라고 떠들고 다녀도 자기만 신실하면 그만이다. 남들의 왈가왈부에 신경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래도 타자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므로 남들의 수다에 상처를 받고, 혼자 뿌듯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엔도 슈사쿠는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믿음은 과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오로지 주님을 향한 것인가?”

배교의 이유

처음 책을 열면 일본으로 간 포르투갈 가톨릭 선교사들이 등장한다. 아무리 모진 학대가 들어와도 이들은 절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들은 충분히 자신이 있었다. 먼저 일본으로 간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학대를 못 이겨 배교(背敎)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선배 선교사들에 대한 경멸마저 있었을지 모르겠다.

당시 일본은 가톨릭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일본정세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인들이 서양문물에 가졌던 두려움은 상당했던 것 같다. 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다. 가톨릭을 체제와 전통을 부정하는 종교로 보고 얼마나 모진 박해를 했었나.

다시 돌아가, 순교할 각오를 한 선교사들이 험난한 경로로 일본에 가는데 성공한다. 일본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가톨릭을 절실하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의 감시가 너무 심해서 쉬쉬하는 상황이다. 선교사들은 주민들의 보호를 받으며 선교를 해 나가지만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먼저 배교한 선배 선교사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안위 때문에 종교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교활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일본인 지도자의 술수가 워낙 대단했던 탓이다.

“종교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들을 죽이겠어!”

자신을 보살피려던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고문하면서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지도자의 협박이 선교사들을 괴롭힌 것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심이 깊은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선교사에게 절규한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을 마냥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선교사들은 근원적 모순에 빠진다. 결국, 주인공은 피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

신앙에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가?

이들은 결국 고향의 친구들로부터 ‘배교자’라는 딱지를 얻는다. 그러나 막상 이들은 오히려 담담하다.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속마음이라.

<침묵>의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꼭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소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암시하지만) 아마도 뻔하다. 주님 앞에 당당히 혼자 독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꼭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대거나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견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믿음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를 머리로만 알 뿐, 심장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교회건물은 늘어나고, 신앙인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대의 상황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도는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줄 메시지

신부는 발을 들었다. 발이 저린 듯 한 무거운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온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믿었던 것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긴 것을 밟는 것이었다.

이 발의 아픔, 그 때, 밟아도 좋다고, 동판에 새겨진 그분은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p.267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7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1,510,000	인건비	일반급여	5,599,000	
	임원회비	1,18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8,362,500		소계	5,599,000	
	기관후원금	5,653,862		사무실임대료	11,775,000	
	월보구독료	1,024,500		사무실관리비	292,200	
	CTC후원금	100,000		통신비	794,00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272,920	
	VIEW후원금	100,000		소모품비	366,190	
	기타후원금	773,640		식비	554,400	
				비품	989,400	
기타수입	보증급반환	1,000,000	경상비	복리후생비	882,820	
	CUP매각금(분납)	800,000		퇴직연금	321,290	
	결산이자	3,181		회의비	64,200	
	예수금	590,930		교육비	67,320	
	소계	2,394,111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1,251,284	
				소계	17,906,024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79,725
					VIEW후원금	100,00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1,179,725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인쇄비	187,000		
			발송비	781,510		
		소계	3,468,51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학술지심사비	140,000		학술지심사료	0	
	학술지게재료	3,500,000		학술지발송비	0	
	학회기타수입	0		학회기타	157,500	
소계	3,740,000	소계	157,500			
당월 수입액	25,838,613	당월 지출액	28,310,759			
전월 이월액	61,782,093	차월 이월액	59,309,947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7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일반급여	415,380	
				기타급여	0	
				소계	415,38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제작비	교정비	0
		기타수입	0		편집비	300,000
		예수금	9,900		디자인비	1,188,000
		소계	2,509,900	인쇄비	2,658,425	
				소계	4,146,425	
				경상비	복리후생비	0
			회계용역비		110,000	
		식비	60,800			
		비품	94,400			
		회의비	49,300			
		소계	314,500			
당월 수입액	3,059,900	당월 지출액	5,069,185			
전월 이월액	27,805,454	차월 이월액	25,796,169			

※ (주) 세상바로보기는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7년 3월 31일 마감)
Date

회원후원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봉현, 김삿별, 김삿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창수,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석연,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옥광천, 유성욱, 윤 정, 이순찬, 이철민, 장재수, 정세열,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주성탁,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경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대용, 김상욱, 김영윤, 김은경, 김명명, 김정심, 김재우, 김태영,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민신기, 박경수,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박현빈, 범경철, 손세웅, 손영경,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유충열, 윤경숙, 윤종춘, 윤주영, 이경미, 이길구,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수인, 이영홍, 이은미, 이인수, 이향숙,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학, 전정진, 전종국, 정봉현, 조인식,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경휘, 박해일, 송지수, 전은경, 조은주, 지경순, 황귀희 **7천5백** 강찬진, 고상선, 김나실, 김성욱, 김재우, 박성태, 방선기, 엄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은순, 전영식, 정원길,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강민창,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혜태,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선영,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계연, 김고운,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기현, 김남진, 김동찬,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철, 김보경, 김봉래,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성찬, 김세래, 김세연, 김세준, 김소라, 김수홍, 김승준, 김승택, 김승호, 김시내, 김아람, 김아름, 김영숙,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미, 김은혜, 김재민, 김재성, 김정모, 김정중, 김정진, 김정호,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근, 김지민, 김진성, 김창현, 김철수, 김태진, 김태진, 김판임, 김혁, 김현정, 김형길, 김형철, 김혜정, 김홍섭,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노영숙, 라영환, 류은정, 류재린,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름, 문진성, 박경원,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균, 박상호, 박선자,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근, 박유관, 박은주, 박종원, 박종원, 박지현, 박진규, 박진형, 박창우, 박현경, 박형준, 박해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름, 배인규,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소종화, 소진희, 송창민, 손하은, 손하나, 손현태, 송종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선영, 신성자, 신자영, 신진성,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호기, 신효영, 심명섭, 안남주, 안병열, 안용준, 양성건,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한,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정은, 유혜무, 유현동, 유화원, 윤영심,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영근,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계식, 이관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정, 이기훈, 이길형,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희,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급, 이상수, 이상찬, 이상철, 이 선, 이선복, 이성이, 이성수, 이수연, 이수진,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희, 이요한, 이윤훈,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혁, 이종환, 이준성, 이준섭, 이자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창걸, 이춘성, 이해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준택, 임현현,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용훈, 장은혜(양종태), 장인국, 장정열,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병희, 전성규, 전중화, 전찬양,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용수,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선하, 조성호, 조승희, 조영우, 조영현, 조은성,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피터계촌, 조하람,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조혜진, 조혜영,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최상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중빈, 최한빈, 최현식,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 연, 허찬영, 허 현, 홍구화, 홍대화, 홍상원, 홍선호, 홍양희, 홍정석, 홍종민,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상준,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혜숙 **1만5백** 전보규 **1만1천** 장현정 **1만5천** 김동현,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강대훈, 고웅재, 김기홍, 김선일, 김양호, 김영규, 김영욱, 김용식, 김은정, 김은태, 김중원, 김진규, 김희숙, 남승우, 노용환, 문재환, 박기모, 박준모, 박성민, 손영규, 송찬호, 송현미, 신승훈, 신찬웅, 신태하, 안동석, 안 석, 안영혁, 양행모, 오지희, 우시정, 유기남, 윤천석, 이 건, 이명희, 이성일, 이인아, 임수복, 임준섭, 임지연, 전영수, 정은은, 정은경, 조주영, 조창근, 최진우, 태영숙, 하진호, 현승근, 황혜정 **2만1천** 김성규, 김성호 **3만** 김미리,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소영,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손영욱, 송태현,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수형, 이은실, 임희욱, 최용준, 추대화, 황정진 **4만** 강운관, 김인숙, 박지희, 이기서 **5만**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박문식, 서진희, 유석천, 정수영, 정은애, 조성태,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현하나 **6만** 강진규,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도서관, 오한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도서관, **8만** 권정아 **9만** 샘물중고등학교, 양성선 **10만** 박상은,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완철, 전광식 **12만** 이상용 **20만** 김승남, 송봉호, 채기현 **30만** 김승욱 **50만** 홍숙의 **60만** 김원수, 양승훈, 유재봉 **100만** 권성윤

계 13,050,64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가족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금성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대구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신석교회, 예심교회, 제자로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한강중앙교회, 흰 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연악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50만3천8백62** 주빌리체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심자교회

계 6,653,862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WORLDVIEW NEWS

201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 일시 : 2017.5.13.(토)
- 장소 : 안양대학교 일주중앙도서관 아래관
※ 대학원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3272-4967, 고한빛 간사

[세계관연구소] 시상금 100만원 학술지 『신앙과 학문』 논문제안서 공모

- 제출기한 : 2017. 5. 30(화)까지
- 제출자료 : 1) 연구논문 제안서 2) 이력서
- 제출처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세계관연구소
e-mail : gihakyun@daum.net
- 선정절차 : 제안서 심사 후 선정 → 선정안내 및 논문작성 요청 → 논문심사 후 게재
- 발표일자 : 2017.6.20(월) 홈페이지 발표

특전 및 의무

- 선정된 제안서는 선정시(50만원)와 논문 게재시(50만원) 총 시상금 100만원/편 지급
- 선정된 논문은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신앙과 학문』에 게재여부 결정 (심사료, 게재료 면제, 단, 23권 1호 (18년 3월호)까지 발행분에 한함).
- 선정된 논문은 본회 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신앙과 학문』 투고 및 본 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전제로 함.
- 문의 : 02-3272-4967

[웨슬리 웹트위스 북펀딩#1]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 북펀딩 마감 : 5월 31일
- 북펀딩에 참여하는 회원이 받는 리워드
 - A형(3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 B형(6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과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1권
- 북펀딩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딩 2탄 제작비로 적립됩니다.

[임원대상] 2차 실행위원회의 실시

- 일시 : 2017. 05. 12(금) 저녁 6시
- 장소 : 사무국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채용공고] 세계관동역회 간사를 모집합니다.

- 행정과 재정(복식부기), 회원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배울 의지를 지닌 분으로, 가급적 자기소개서를 정확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주요 업무 : 1) 행정과 재정(복식부기) 2) 회원관리
- 공통 지원 자격
 - 1) 신앙고백이 있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도 (세례교인)

- 2) 본 단체의 가치와 정체성에 공감하는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근무 조건

- 1) 주 5일 근무 (오전 8:30~오후 5:30, 야간 프로그램 또는 지방 행사 시 탄력 근무)
- 2) 4대 보험가입, 퇴직연금 가입(1년 이상 재직 시), 점심/야근 시 식대 제공
- 3) 급여 : 기본급 150만원 (경력은 면접시 논의)
- 4) 채용 후 3개월 수습적용(급여 100%)
- 5) 근무처 :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39 B107호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제출 / 사진필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nfo@worldview.or.kr)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진 면접 → 3차 임원 면접

- 문의 : 02-754-8004, info@worldview.or.kr (신효영 사무국장)

[월드뷰 편집인 사임] 신효영

월드뷰 4월호를 마지막으로 지난 5년여 시간 함께한 월드뷰 편집장을 사임합니다. 앞으로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장으로 정체성에 적합한 다양한 장, 세대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동역자 여러 분들의 목소리와 의견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역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신효영 사무국장 hhyoungshin@naver.com, 02-754-8004)

[월간 월드뷰]

월간(월드뷰) 5월호부터는 편집 담당자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주소와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주소와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 콕우정)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 전화 : 02-718-8004

- E-Mail : editor.worldview2@gmail.com

* * *

5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5/12(금) 2차 실행위원회의
- 5/13(토) 2017년 춘계학술대회 (안양대학교)
- 5/20(토)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더면 공동발행
- 5/29(월) 월드뷰 6월호 발행
- 5/30(화) 세계관연구소 논문제안서 마감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예금주 또는 가입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종교개혁적 전통의 교육 및 실천

* 기조강연 *

종교개혁과 문화 이은선 (안양대 교수)

종교개혁과 교육 조성국 (고신대 교수)

종교개혁과 삶의 실천 김재윤 (아신대 교수)

2017.5.13.(토)

안양대학교

* 논문발표 신청 마감: 4.14(금) 저녁 7시 / www.worldview.or.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안내 메일 확인)

* 완성본 제출: 4.28(금) 저녁 7시 / gihakyun@daum.net (학회 메일)을 통해 직접 제출

* 대상 분야: 기독교세계관, 경영/경제, 교육, 과학, 문학/철학, 문화예술, 사회복지/상담, 인문학, 의학 등

* 꼭 기일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의 정착과 복합학문 성격을 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에 제한이 있습니다.

* 학회 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